



# 라켓만 있으면 언제 어디라도 OK~

지난 2000년 4월 발족한 한국후지제록스(주)의 배드민턴 동호회(회장 조태현 과장, 사업추진부 프로그램 관리팀)는 현재 27명의 회원들로 구성, 왕성한 활동과 그에 따른 명성이 사내에서도 자자하다. 특히 회장을 맡고 있는 조태현 과장은 배드민턴 경력 7년 차로 인천시에서 개최되는 클럽대항 인천시장배 40대 부문 금메달리스트로서의 실력을 겸비하고 있다. 동호회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정기 모임을 갖고 있으며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는 연습회와 더불어 월례회도 겸하고 있다. 배드민턴 동호회의 특징은 회원 대부분이 사내동호회 뿐만 아니라 개인 교습, 혹은 지역 클럽 등에서 활동함으로써 모자라는 주 1회의 연습량을 채움과 동시에 실력향상을 꾀하는 등 매우 열정적이라는 것이다.

## 회사에선 동호회, 퇴근 후엔 지역 클럽

배드민턴은 크게 부담을 주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운동량이 많아 높은 운동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장소와 인원 문제에 대해 크게 구애받지 않고 라켓과 셔틀콕만 있으면 집주변의 조그마한 체육관은 물론, 약수터나 마을 공터에서도 충분히 경기할 수 있다.

특히 각자의 수준과 연령대에 맞는 상대선수와 짝을 이룬다면 몸이 허약하거나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고연령대의 사람들도 신체에 그다지 큰 무리를 주지 않고도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축구와 농구 같은 격한 운동은 심한 신체적 접촉이 동반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지만, 배드민턴은 네트를 중간에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상의 위험이 적다.



뿐만 아니라 순간 속도가 가장 빠른 셔틀콕의 빠른 스피드와 다양한 스윙에 따라 변화하는 셔틀콕의 움직임이 조화를 이룬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 늦바람이 무섭다

남들보다 다소 늦은 나이에 시작한 품질보증부 이재홍 과장은 배드민턴 삼매경에 푹 빠져 살고 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배드민턴에 할애하는 이 과장은 일주일에 무려 6~7일을 배드민턴과 함께

▶ 회장인 조태현 과장이 서비스 시범을 보이고 있다.



◆ 지난 1월 10일 정기모임을 갖고 단체사진 한 컷.



하며 배드민턴을 늦게 시작한 것에 따른 한풀이(?)를 하고 있다.

특히 일요일과 같은 휴일 새벽에도 아내가 깨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며 집을 탈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배드민턴과의 데이트를 맘껏 즐긴다고 한다.

물론 동료 직원들과의 회식자리, 친구와의 술자리 등도 마다하며 퇴근 후는 어김없이 배드민턴장으로 직행한다고 하니 회사 출근하는 것이 곧 퇴근 후 운동을 위한 준비단계로 비춰졌을 정도이다.

이에 아내와 자녀의 불만이 짝트는 것도 당연지사, 이들로부터의 심한 견제(?)와 저항(?)에 부딪혀 한 때는 자루 당 15~20만원에 달하는 라켓 서너 자루를 부러뜨리며 배드민턴과의 이별을 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늦바람은 무서웠다.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과장은 배드민턴의 유혹을 끝내 뿌리치지 못하고 배드민턴과 해후, 그 절절한 사랑을 지금도 키워가고 있다고 한다.

### 관심 높여 사내대회 열고 싶어

한국후지제록스는 각 동호회 참석 인원 및 활동과 관련한 월별보고서에 근거,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 과장은 “지금까지는 회원

들의 활발한 활동 덕에 여타 동호회들보다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서툰 소모량이 워낙에 많아 회원들의 사비 지출도 꼭 필요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배드민턴과 관련한 사내대회는 열린 적이 없으나 좀더 많은 직원들에게 배드민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홍보함으로써 앞으로는 사내대회도 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한편 한국후지제록스의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은 회사 동호회 활동뿐만 아니라 외부 모임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특히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4명의 회원들은 그 지역 배드민턴 모임인 담방클럽(담방 아파트촌 클럽으로서 이 클럽의 회장도 후지제록스 품질보증부 박인서 검사과장임)에도 가입하고 있다. 이에 후지제록스 배드민턴 동호회는 담방클럽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같은 공간 내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주)린나이코리아 배드민턴 동호회와도 교류를 넓혀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다.

### 귀족 스포츠...서로 간 예절 지켰으면

초창기 배드민턴은 귀족계급을 위한 스

포츠로서 경기 예절이 매우 엄격했다. 운동할 때도 깃이 높은 셔츠를 착용해야 했으며 단정하게 입은 저고리에 실크모자를 쓴 채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복장과 매무새로 경기에 임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조 과장은 “이러한 격조 높은 예절 의식은 현재에도 배드민턴 경기의 정신적 지주를 이루며 엄격한 매너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과장은 배드민턴 경기에 임함에 있어 자기보다 실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알보지 말고 성의껏 응해주기, 경기 파트너를 철저히 믿고 실수해도 파트너 탓으로 몰지 말고 자기 탓으로 스스로 인정하기, 경기 시작할 때와 끝날 때는 인사로써 정중히 예를 표하기, 상대를 의심하지 말며 상대코트의 판정을 믿고 인정하기 등은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절이라고 밝혔다.

“어떤 운동에서도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항이지만 소홀하기 쉬운 경기 예절에 대해 조금만 더 주위를 기울인다면 다른 어떤 경기보다도 배드민턴을 즐겁고 유익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조 과장의 생각이다.

(조갑준 기자)